

2016년 10월 21일, 구좌읍 세화리 부신남씨 댁, 송정희 조사.
부신남(여, 1920년생, 구좌읍 세화리)

[조사자] 이 동네에.

[제보자] 옛날엔.

[조사자] 문어이야기 같은 거 엇입니까? 문어, 문어가, 문어, 문어.

[제보자] 문어?

[조사자] 응. 문어.

[제보자] 문어가 바당에 잇입주.

[조사자] 응. 그게 어떻 헹 솟 우이 앗아져 허는 얘긴 안 들어봅디가?

[제보자] 물에 들어서 잡았지 뭐.

[조사자] 그게 어떻 하당 보난. 솟뚜껑 우에 앗앙 잇어라 허는 얘긴 안 들어봄디가?

[제보자] 저 우이. 솟덕 우이 앗았더라.

[조사자] 응.

[제보자] 옛날에 갯것이 강 바르 잡아당. 어떤 어떤 할. 저. 흐쓸 모슬력 할망이지. 그 문에가 빠짝빠짝 부뜨지 안 허냐? 하간 것에. 몸에도 부뜨고. 구덕에도 부뜨곡. 허난. 보말 잡아네 훈 디 노난 보말 솟더레 탁 비우나네 이젠. 그 문에는 떨어지지 아녀서 구덕에 부떠분 걸 몰랏어. (웃음) 몰랏어. 구덕을 영 훈바짝더레 정지에 훈짝더레 영 낭 네비지. 허난 그것이 이젠. 흐꼼 뜻뜻해가난. 그 보말 숲는 디 영 기어갓어. (웃음) 불치를 써 부난. 거멍햇지. 문에가. 거멍햇어 솟덕 우이에 앗이난. 걸 구신 나왓다고 헷지. 구신이 나왓다고. 경 말제는 보난 몽둥이로 두드리멍 보난 문에라. 그것이. 구신이 아니고. 경햇다고 옛날 할망덜 말 곤지. 우리 우리 나기 전에지.

우리 난 때는 이녁냥으로 강 심곡. 갯것이 강 막 두들리곡. 허민 그 먹 내어불곡 허민. 죽어지지. 니빨도 빠 불곡. 그냥 산 차 심엉 구덕에 낯당은 바당에서도 일러비여. 갯것이에도 구덕 영 차그네. 뭐 보말도 잡아 놓곡. 우미 넣고. 메역도 툰아 놓고 허민 문에는 히어 뎅기당 영 돌 일르민 돌에 탁 잇곡. 경 허민 문에는 심엉 구덕에 들이쳐당은 뭉게 일러비는 사름 만헤여. 거 말제는 거 돌에 강 탁탁 두드리멍 죽여서 놔야. 뭋에 묶엉을 노나 그러해낫지.

- 핵심어 : 구좌읍 세화리, 솟, 문어, 갯것이, 구덕, 구신